教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3, Vol. 21, No. 4, pp. 299-320.

#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문화 연구[1)]

함 영 기(성균관대학교)
양 정 호(성균관대학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초등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초등학교 교직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바람직한 온라인 교사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실밖 교사 커뮤니티" 43명의 초등교사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법을 통해 교직문화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인 현재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의 초등교사 문화가 아직 남아 있으나 초등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사전문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긍정적인 초등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교사문화, 인터넷 활용, 초등교사, 교사전문가공동체**

## I. 서 론

초등학교 교사 문화를 논의하는 기존의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주로 초등교사들의 직업정체감, 교직의 특성에 대한 인식, 교사의 성향, 교직의 매력에 대한 인식, 교사의 근무 조건에 대한 인식, 교직지원체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교사의 업무 및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 문화의 특징을 논의하는 방식 또는 초등교사의 생애를 통하여 교직문화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시도 등을 발견할 수 있다(류방란, 이혜영, 2002; 유한구, 김승호, 1998; 이정선, 2002). 한국의 초등 교직문화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행을 중

1) 본 논문은 2003년 10월 25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2003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저자는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 주신 박선형 교수님, 조석훈 교수님, 익명의 세 심사위원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여러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박병건 인디스쿨 운영자님께도 감사드린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시하는 보수주의적 특성,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성으로 인한 현재주의적 경향,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향이 지배하고 있다(황기우, 1998). 대체로 이러한 시각은 커다란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구자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의 초등교사 문화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즉, 교장에 의한 교사 통제 관행,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동료 교사들, 고립된 교실 속에서의 개인화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초등교사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지 또는 극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ICT 활용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학교 현장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습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료 간 또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실 속에서 고립된 존재로만 여겨졌던 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교사들을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학교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보람과 자기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꽤 발견되고 있다. 또한 중등교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과 초등교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컨텐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초등교사들의 학교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인터넷의 대중화가 초등교사들의 문화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독특한 측면들을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초등교사들의 문화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변화가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찾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전개될 초등교사들의 바람직한 온라인 공동체 형성 방법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교사들의 문화 양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유한구와 김승호(1998)는 이러한 분석적인 연구들이 교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있어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을 노정시킨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중 하나는 연구방법상의 한계로서 교사의 삶을 연구하는 일에는 통계적 절차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분석적 연구의 문제점은 '총체성'의 결여로 기존 연구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가 초등학교 교사의 삶을 초등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근무조건, 직무내용, 교직풍토 등과 같은 어느 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만 힘썼을 뿐, 교사의 삶을 이루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을 맺어 총체적인 교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가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일기 쓰기와 초등교사 문화와 관련한 서면 질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초등학교 교사가 된 동기, 초등학교 교사의 자화상, 초등학교 교사의 삶의 보람과 애환,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성장 과정, 초등학교 교사의 생애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정선(2002)은 초등 교직문화의 특징을 전문적 기술문화(descriptive culture of teaching)의 부재,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 이중적 구조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적 기술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Lortie(1975)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교직은 타 전문직과 달리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거나 지적으로 체계화된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이 없으며 다양하지 못한 학습 환경, 우연성에 맡겨지는 교육실습과 같이 직업사회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연구물에서 이정선은 교직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고립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는 상호작용을 고무하기보다 상호분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조성한다고 언급하였다. Lortie는 교사들의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승진과 미래의 전문적 직업발전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여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개선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다시, 이정선은 Lortie의 지적을 예로 들어 교직의 현재주의는 교직의 보수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사회적 신분 상승 이동 기회를 제한적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교직은 충원과정에서부터 직업적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보수주의를 표현한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와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 등은 교직에 대하여 '특수한' 것을 기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지위와 보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 직업이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류방란과 이혜영(2002)은 초등학교 교사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과 행정 업무에 초점을 맞춰 교사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초등교사 문화가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교사들의 생활과 문화의 본령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정제된 조직(capsuled organization)'이라는 말을 예로 들면서 정제된 조직은 그 변화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 외부의 실질적인 내용이 상급 기관인 경우 바로 관료제적 조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외부의 비판에 대비하기 위한 '보여주기' 전략을 낳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기존의 연구물들은 양적 접근, 질적 접근, 또는 두 접근 방식을 혼합한 것들이며 대체로 그 대상은 초등교사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 2. 초등교사들의 문화를 규정하는 요인들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황기우(1992)는 학급 내에서는 교수학습지도, 학생통제, 그리고 학급관리와 같은 일을 하며, 교실 밖에서는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선(2002)은 초등교사의 인간관계를 교사-학생들 간의 관계,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교사-행정가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로 분류하였고, 진동섭과 정수현(1995)은 초등교사간의 관계는 상호 긴밀한 상호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교장이나 동료교사들의 조력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Parkay와 Stanford(1995)에 따르면 교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첫째, 가르친 결과는 예측 가능하지도 일관되지도 않다. 둘째,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셋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넷째, 그럼에도 교사는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째, 교수활동은 즉시적이고 비정규적으로 일어난다. 여섯째, 가르치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에 일어나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그 무엇이다(이정선, 2002에서 재인용). 이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확실한 원칙과 원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교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일상성과 현장 교사들의 일을 규명하는 기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규범문화를 규정, 교직도 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기술문화의 형성과 성문화된 경험체계 필요성, 초등 교육 현장에 녹아 있거나 스며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적 기술문화를 캐내기 위한 학술적 노력의 필요, 초등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사들 스스로의 연구, 초등학교 교사들의 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정선, 2002).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Lortie(1975)가 지적한 바 있는 '교직특유의 불확실성'이라는 논거가 자리하고 있는 듯 하다. 교직은 다른 분야의 일에 비해서 직무수행 행동의 평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교직과 같이 그렇게 많은 내재적인 평가의 문제가 문화적 정의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직업은 드물다는 것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3. 교육정보화의 진전과 교사의 역할 변화

교육정보화의 진전과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는 교사들의 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교실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설치와 멀티미디어실의 확충, 전자도서관으로의 개선 등은 학교에서 교사가 생활하는 방식, 학생들과 학습하는 방식 등을 바꾸어 놓고 있다(정바울, 2001; 최욱, 이수현, 2003).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황기우(1998)가 진단한 한국의 초등 교직문화 즉,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특성,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성으로 인한 현재주의적 경향,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향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특성은 젊은 세대의 대거 진입으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공존으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고립은 인터넷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일정하게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주의적 경향 역시 ICT 활용교육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미래지향적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사들에게서 다소 강하게 나타났던 보신주의적 성향도 교원단체 활성화와 함께 개혁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가 감지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나일주, 홍성연, 2003; 함영기, 2002).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 문화의 변화와 연동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화와 관련한 초등교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정보화의 진전 또는 ICT 활용교육으로 표현되는 정보화시대 교수학습 방법 등은 필연적으로 초등교사들의 문화 양상이 변화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쉽사리 확인되지 않지만 초등교사들의 역할과 문화의 변화 조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초등교사들의 문화에 대하여 온라인 인터뷰와 방문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운영하는 교실밖 교사 커뮤니티(http://eduict.org)의 초등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 동안 이루어졌다. 교사들의 문화 양식을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질문지는 보다 진솔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응답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성별, 연령대, 근무 지역만 표기하도록 한 후 제시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된 질문에 대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적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온라인 질문지 응답자들의 유형별 분포(N=43)

| 구분 \ 분포 | | 인원(명) | 비율(%) |
|---|---|---|---|
| 성별 | 남 | 17 | 39.5 |
| | 여 | 26 | 60.5 |
| | 계 | 43 | 100 |
| 연령별 | 20대 | 10 | 23.3 |
| | 30대 | 12 | 27.9 |
| | 40대 | 14 | 32.6 |
| | 50대 이상 | 7 | 16.3 |
| | 계 | 43 | 100 |
| 근무 지역 | 대도시 | 26 | 60.5 |
| | 중소도시 | 13 | 30.2 |
| | 농어촌 | 4 | 9.3 |
| | 계 | 43 | 100 |

## 2. 온라인 인터뷰,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

본 연구에 초등교사들의 교직문화와 인터넷 활용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온라인 인터뷰, 심층면접, 그리고 참여관찰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 가. 온라인 질문지에 의한 인터뷰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온라인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이나 근무지, 연령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들은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가능한 연구자의 시각을 배제하고 응답자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익명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 나. 심층면접

온라인 질문지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보충 질문이나 직접 대면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를 추출하여 이메일 질문지를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명의 교사는 직접 근무처를 방문하여 대면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참여관찰에서 나타난 기초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이트의 운영자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시도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다. 참여관찰

초등교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초등교사 전용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였다. 관찰된 결과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요와 함께 운영자 인터뷰와 참여자 인터뷰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 3. 자료처리과정

결과는 질문과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중복되는 응답은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응답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답변도 있고 다소 긴 답변도 있다. 열거형으로 답변을 한 응답자의 경우에만 최소한의 문장으로 재 기술하였다. 온라인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선정한 교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한 질문응답 및 추가 질문 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화 통화 및 대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된 자료를 양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이나 비율 등을 보고자 할 때 본 연구는 만족할 만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직접 인터뷰나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연구방법상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본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소수이긴 해도 인터넷 활용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온라인 질문지를 보고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만을 상대로, 또한 연구자 임의로 선택한 교사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나 응답 내용은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일부 응답은 질문에 대하여 완전한 적합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관찰 대상이 된 교사 커뮤니티는 개설 당시부터 줄 곳 참여해 왔기 때문에 기술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인터뷰나 방문 면접 등은 조사 기간이 매우 짧아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Ⅳ. 인터넷을 통한 초등교사들의 문화 양식

## 1. 초등교사들만의 독특한 문화양식에 대한 생각

교사들의 문화양식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적인 문화양식이 있고, 초등교사들만의 특별한 문화양식이 있다.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제반의 활동이 공통적인 문화양식을 규정한다고 하면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초등의 경우에는 학급을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물론 그 외에도 교실에서의 생활이나 교무실의 기능 등에서 초등과 중등은 차이를 보인다. 본 질문에서는 초등교사 스스로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어떤 점이 얼마나 독특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 가. "경력 위주, 선후배간 위계질서 문화"

우선, 초등문화의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력위주의 위계질서'와 '중등보다는 좀 더 강한 상명하달식 문화풍토'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출신 대학이 거의 비슷한 까닭에 서열적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들고 있다. 학급운영이나 교과지도에 있어 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중등에 비하여 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등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간에 전공 교과가 다르면 교과지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데 비하여 초등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경험한 것과 교사가 실천하는 직무 유형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경력위주의 다소 폐쇄적인 위계질서와 요즈음은 많이 나아졌지만 작은 공화국과 같은 학교장 위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형식적인 회의 과정이 다른 중등학교에서 볼 수 없는 초등학교만의 독특한 교직문화가 있다. <대도시/30대/여교사>

> 초등의 경우, 동료가 동시에 학교 선배이거나 후배이다. 또한,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모든 학년을 가르치다 보니 각자의 개성이나 고유 영역을 존중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리자와 교사의 관계에서 교장, 교감선생님도 같은 교사였고, 같은 과목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보니 일방적인 지시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에는 중등의 경우, 내가 수학담당이고 교장 선생님은 과학과목 담당이었다면 교장선생님은 나의 수업에 대해 간섭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초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도시/20대/여교사>

### 나. "동학년 문화"

'동학년 문화'를 독특한 초등교사들의 문화로 꼽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학교 행사, 학급운영, 교과지도 등 거의 모든 업무가 동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학년을 배정 받느냐가 일년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동학년의 구성은 초등교사들에게 큰 관심 사항이다. 학급에서의 생활은 고립, 개인화, 형식주의를 지적하는 교사들도 있고 학급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동을 만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철학에 따라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하루 종일 교실에 붙어있기 때문에 타 교사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지적은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학급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교사들의 고립성'을 보여준다.

> 1년 단위로 학년과 학급이 정해지면 교사간의 교류는 학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며,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담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는 교실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며, 아동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학급운영 방침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동학년 구성원이 어떠한가와 동학년 교사들의 분위기에 따라 일년이 판가름된다는 말을 한다. <대도시/30대/여교사>

>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동학년으로, 모든 일이 동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모든 결정 사항과 진행이 동학년과 보조를 맞추게 되어 있다. 같은 학년, 같은 과목, 같은 단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므로 또한 학부모들 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대화와 비교가 이루어지기에 어떤 특별히 튀거나 뒤쳐지다 보면 그 선생님이나 다른 동학년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바로 올 수 있기에 언제나 적당히 긴장하며 너무 다르지 않게 조절을 한다. <대도시/40대/여교사>

동학년 초등교사들간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자.

> 동학년 교사들과의 유대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면 서로 멀어지기도 한다. 담임 반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타인의 간섭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다. 교과지도를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고 그를 위한 개인적 연수 기회를 많이 가진다. 또한 학급 경영의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가지려 노력한다. 학급이 작은 국가이고 담임 교사는 정치 지도자와 비슷하다. 학급, 학년, 학교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하며, 자신의 지위와 관련된 행정적 불이익이나 정치적 불이익에 민감하나 집단적 대응에는 아주 소극적이다.
>
> <30대 여교사/경력 13년/서울/5학년 담당/교육과정부 부장>

역시 '동학년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학년, 학급 이기주의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고 있다. 학급경영이나 교과지도에 대한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를 위한 개인적 연수기회를 많이 가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교사들의 문화가 성별, 세대별, 거주지별로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초등과중등의 차이를 훨씬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2.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초등학교 교사문화

'서열적 선후배 관계'와 '동학년 문화'로 압축되는 초등교사들의 문화양식이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나타나는 초등교사들만의 문화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사례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초등교사들의 경우에는 주 생활공간이 학급이며,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는 교사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등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중등교사들은 각자 전공과목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도 교과별 모임이 활발한 듯 하다.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 같은데, 초등교사들은 교과자료에도 관심이 많지만, 인성 면에도 관심이 많아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나 학급경영 자료, 플래시 자료 등을 많이 찾는 것 같다. <대도시/30대/여교사>

> 초등에서는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공통적인 것이 많기에 이야기도 잘 통하고, 또한 교직 인구도 많아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학습 자료 및 학습 방법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도움을 받은 만큼 서로 도움을 주려는 풍토가 형성되어 이전보다 훨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으로의 향하는 데 인터넷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는 '인디스쿨(http://indischool.com)'이나 '예은이네(http:// picture.new21.org)', '네모샘(http://oksone.new21.org)'을 들 수 있다.
> <대도시/40대/여교사>

답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등교사들이 교과를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한다면 초등교사들은 학급을 중시하는 문화풍토를 엿볼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역시 '동학년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성된 학습 컨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은 초중등을 막론하고 ICT 활용교육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초등교사들에 의하여 개발된 홈페이지 중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인디스쿨'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겠다. 초등에서는 단일교과보다는 학급경영이나 인성, 학급 환경 등 교과를 초월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 유통에 대하여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소수는 '백화점식 자료에 익숙해진다'라고 경계하는 부분도 있었다. 함영기(2002)는 ICT 활용수업을 자료제시에 의한 학습과 소통에 의한 학습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활동중심 ICT 활용수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접속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2, 30대 교사들에게서 적극적 활용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 3. 바람직한 초등교사문화: 인터넷 교사전문가공동체를 향하여

앞의 두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생각과 바람직한 초등 교직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가. 전제조건은 "기존 문화의 타파"

대부분의 초등교사들 스스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을 바람직한 초등교사 문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많은 초등교사문화 연구물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부담'과 '수직적 위계구조' 등의 외적인 요인과 '지나치게 순응적인 교사들의 태도', '매너리즘', '이기심'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바람직한 초등교사 문화를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초등학교의 교직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는 학교 외부에서 시시콜콜하게 너무 간섭이 많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말 한 마디에 전 교직원이 신경을 써야하고, 행정 협조 요청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는 등 교육은 교육자가 자신 있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외부에서 격려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40대/여교사>

> 바람직한 문화를 가로막는 외적 요인은 살인적인 업무 부담이다. 엄청난 수업 시수와 잡무로 인해 퇴근 전까지 짬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초등교사들의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이다. 미리 계획된 동호회 일정이라도 학교의 사정이 있으면 알아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초등교사들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바람직한 초등 교직문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대도시/30대/여교사>

> 무엇보다 학교장의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 좋은 정보와 자료를 나만 가지고 써야지 하는 성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도시/30대/여교사>

>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막는 장애 요인은 너무 많은 과목과 수업 시수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상태라는 것이다. 직계 선후배 관계로 인해 공과 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교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도시/20대/여교사>

### 나.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학습자료 공유"

많은 초등교사들은 바람직한 교사문화로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고,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들의 상호공유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들이 한 학급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 교사들간의 자유로운 '학습자료에 대한 공유와 학교를 뛰어 넘는 활발한 의사소통'과 같은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 기반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초등교사들의 근무 구조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겠다.

> 교과 연구회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각자 업무와 다른 계획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듯 하다. <대도시/30대/남교사>

> 내 경험, 그리고 주위에서 본 바로는 인터넷 역시 학교생활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웹상에 학급 카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급 운영에 이용하는 것, 학부모와의 대화를 유도하는 점 등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학급운영 및 교과지도에 대한 좋은 자료를 구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대도시/20대/여교사>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다. "참여 기반 의사교환체계 확립"

대체로 젊은 초등교사 층에서는 수평적 또는 참여의 의사교환체제 확립을 바라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교장임명 방식의 변경'까지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선후배로 이루어진 조직체계로 인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을 요구한 이런 의견과는 달리 소수이긴 하지만 '남녀 교사 수의 차이, 세대간의 교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다(대도시/50대/남교사)'라는 진단도 있었으며 NEIS 문제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교직단체의 통일, 학교장 중심 학교 경영,관리자의 권위회복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흔들림 없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력이 절대 필요하다(중소도시/50대/남교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 수평적인 의사교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장선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 방식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다른 부분을 고친다 해도 변죽만 울릴 뿐이다. <중소도시/30대/남교사>

> 자료의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들 간에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는 교사 자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기 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바로 승진이나 여러 이익과 바로 관련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뉘어 져야 하는 점이나, 관리직의 인식변화가 더디다는 점도 장애가 되는 것 같다. <대도시/20대/여교사>

> 자신의 수업 아이디어나 학급경영 아이디어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선후배 등의 서열 관계를 떠나 다같이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대도시/30대/여교사>

인터넷은 그 특성상 각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각자의 의견이 서로 상호간에 존중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바람직한 초등교사 문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학교장의 지나친 권위, 선후배 관계로 짜여진 위계적 조직, 교사 상호 간의 교류 부족 등의 장애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을 통한 교사 커뮤니티이고 이를 통한 새로운 교사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인터넷 교사전문가공동체의 시작"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초등교사들의 인터넷 이용의 증가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하나의 교사전문가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많은 교사전문성 및 학교공동체연구들(노종희, 1996; 양정호, 2002; Bryk, Lee, & Holland, 1993; Louis, Kruse, & Associates, 1995)을 보면 교사들 상호간의 다양한 정보교환, 학교라는 존재이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하나의 가족이라는 동질감 형성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초등교사들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교사전문가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교사들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쉽다. 남녀 교사 수의 차이, 세대간의 교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다. <대도시/50대/남교사>

>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직문화는 '인디스쿨' 같이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초등 교직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이다. 나서는 사람에 대한 질시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질시이다.
>
> <농어촌/30대/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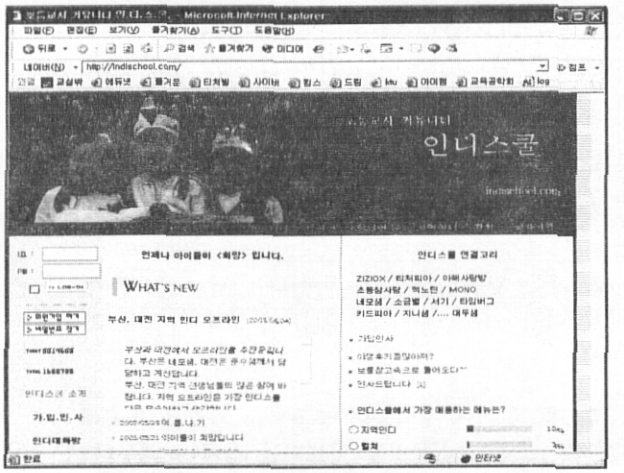
이러한 하나의 인터넷 교사전문가공동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학교의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된 우리나라에서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인터넷의 교사공동체가 어떻게 전개되는 가에 따라서 현재의 초등교사문화도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들은 기존의 교육 연구자들나 교육정책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V. 초등교사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인터넷 활용과 문화

## 1. 인디스쿨(http://indischool.com)의 경우

연구자는 온라인 인터뷰의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초등교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그림 1]이 보여주고 있는 인디스쿨(http://indischool.com)의 대표 운영자를 심층면접하였다. 약 1시간에 걸쳐 대면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후에 메일을 통한 추가질문으로 답변 내용을 보충하였다. 인디스쿨 대표 운영자는 교직경력 9년의 경기도 오마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병건 교사이다. 현재 6학년 담임과 교육정보부장을 4년째 맡고 있다. 먼저 초등교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개설하게 된 동기와 현재의 회원 현황에 대하여 물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그림 1] 인디스쿨 초기화면

인디스쿨 이전에 T-Cafe, 대두샘의 초등교육 검색엔진, 대두샘의 환경 이야기 등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을 하면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다. 방명록 하나에 의지한 상호작용이나 감사의 글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접속자 모두가 운영자인 사이트는 없을까, 교사 개개인이 가진 노하우를 공유할 곳은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사이트 개설 이후 학급 홈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운영 사이트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인디스쿨에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 총 회원 수는 2003년 9월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다. 약 80퍼센트 가량이 초등교사이다. 현재 하루 1만 5천명 정도의 일일 방문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6백여 만원의 자발적 후원금을 거두어서 자체 서버를 구입,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위 답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초등교사들을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정보의 제공자로 나서게 하여 소통의 힘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 수와 접속자 수를 자랑하고 있다. 접속자 수가 늘게 되면 인터넷의 특성상 자체 서버를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인디스쿨에서는 이를 '회원 교사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후원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면서도 '참여교사들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디스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항목을 질문하였다.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뉴는 동학년 메뉴, 연수 메뉴, 교육자료실 메뉴이다. 동학년 메뉴는 매우 현장감 있게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로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메뉴이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수업내용과 수업 진도, 그리고 어렵게 느끼는 점의 공통성 등으로 인해 이 메뉴가 꼭 필요하며 활성화되는 원인이라고 본다. 인디연수는 업무분장으로 겪는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며, 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디스쿨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단일 메뉴로 교단일기는 초등교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서로 위로, 조언할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교육자료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실 메뉴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분들이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교실에서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들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

인디스쿨 활동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교사들의 독특한 근무환경'과 '자료제공 방식'을 일치시켜 가고 있고 그것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초등교사들은 각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과진도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모든 업무나 수업활동의 단위가 '동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등교사들의 문화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교사들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동학년 중심의 수업자료 공유'와 의사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뉴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운영자이자 사용자라는 방식을 통하여 주체로서의 의식을 높여주고 있는 점도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교사문화 양식이다. 이어서 인디스쿨이 새로운 초등교사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런 표현을 쓴다. 초등교사는 강가의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져 있다는. 바로 옆 반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이 오프라인 교실의 현실이다.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보다 큰 원인은 서로의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이다. 인디스쿨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런 분위기를, 이런 보이지 않는 불문율을 허물고 있다.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으려는 분위기, 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 자신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분위기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찾기 힘든 부분이다. 인디스쿨의 기본 정신은 초등교사라면 누구나 운영자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운영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의도적으로 삼가고 있다. 각 메뉴마다 기능상의 담당자를 두고 운영을 해왔다. 이 담당자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인디스쿨의 운영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근엔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좀 더 유기적인 조직체로 정비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이나 오프라인 연수를 추진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실무진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 등은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대로 '전통적인 초등교사의 문화범주'에 속한다. 인디스쿨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문화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 운영자의 답변이다. '***자신의 수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분위기***'도 기존의 학교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인디스쿨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만으로 모든 해결하고자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들을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교사문화를 엿보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연구자는 이어서 인디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는 운영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들어봄으로써 공통되게 나오는 요인들을 추출해보기 위함이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초등교사들의 문화적 특징이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질문에 응한 교사는 경력 6년의 서울 T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였다. 운영자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초등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특별한 메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 동학년 메뉴이다. 초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년을 매년 옮기게 되는데, 그것도 6학년에서 1학년이라든지 학년 차가 많게 이동을 매년 하게 된다. 거기에다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과 다루어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은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도 그 날 그 날 해야 할 교재 연구에 항시 미진하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의 같은 동학년 선생님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서로 연구한 자료라든지 애로점, 질문, 답변, 안내, 자료 제공, 자료 요청 등 여러 형태로 시시 때때 도움을 주고받는다. 또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생기기도 한다. 아직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학년 선생님들 간에 한 과목씩 '선진도' 학급을 만들어 미리미리 더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제점 발견, 대안 제시 등을 하여 더더욱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고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앞 절에서의 온라인 질문지에 의한 응답 결과나 인디스쿨 운영자의 답변과 같이 '동학년 메뉴'를 꼽고 있다. 결국 인디스쿨은 '동학년과 인터넷을 묶는' 방식으로 초등교사들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열성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루에 몇 번 방문하는지를 물었다.

> 내 경우는 한 20여 차례 들어가는 것 같다. 아예 컴퓨터 화면 한 편에 인디스쿨을 열어 내려놓고 수시로 확인한다. 열성적인 다른 교사들도 다르지 않다. 나와 인디스쿨은 일종의 생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학교생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이 교사들의 문화를 '상당한 정도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중등보다는 초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초등교사의 근무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정 사이트를 하루에 20회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구조는 하루 종일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문화 양식이다. 다음으로 인디스쿨이 새로운 초등 교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 우선은 연구하는 자세와, 다양한 교육 방법 모색, 풍부한 자료 제작 및 공유, 활용, 초등교사들의 단결력 강화, 전국적인 교사들이 편리하게 접근함을 통한 지역적 갭 타파를 들을 수 있고, 각 개인 선생님들마다 자료를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같은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함으로써 화합의 분위기도 만들고 여러 학생들의 교육에도 힘을 실을 수 있어 보다 더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다 더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운영자와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공통의 키워드는 '동학년', '자료공유', '소통'과 같은 말이다. 이는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틀어 초등에서는 동학년 문화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업자료의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노력들에 의하여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은 앞으로 초등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2. 인디스쿨이 제시하는 초등교사문화에 대한 시사점

"바로 옆 반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이 오프라인 교실의 현실이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이다..."라는 인디스쿨 운영자의 말은 비록 오프라인에서 동학년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도 '같은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오프라인의 동학년과 온라인의 동학년은 용어는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통용된다. 온라인 질문지나 심층면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동학년 문화는 상대적으로 의무감을 수반함 형식적인 문화인데 반하여 온라인에서의 동학년 문화는 그야말로 자발성을 기초로 구체적인 소통들이 일어나는 문화이다.

초등교사들이 가진 동시성은[2]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기제가 된다. 만약 같은 학년 같은 교과일 경우에는 상당히 흡사한 수업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개발된 학습자료가 널리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디스쿨의 사례에서 보듯 적극적 참여자들의 수업 방식은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처한 근무환경의 문제이다. 중등이 교무실을 생활의 주 근거지로 하면서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는 모습이라면 초등의 경우에는 교실로 출근하여 교실에서 거의 모든 수업을 담임의 주관 하에 진행하고 수업 종료 후 퇴근 전까지의 시간도 교실에서 보내게 된다. 중등의 경우에는 교사용 PC가 교무실에 있고, 초등의 경우에는 강의 겸용인 PC가 교실에 있으므로 중등과 달리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이나 개인 업무에 있어

2)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교사들이 학년에 따라 하루 일정이 대단히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단원을 공부할 때에는 수업의 내용까지 비슷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미 개발된 ICT 학습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놀랍도록 흡사한 수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상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초등교사들의 PC 사용의 안정성은 때로 초등교사나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상업적 초등 학습 컨텐츠'의 범람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인디스쿨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 달리 초등교사들의 문화를 이야길 할 때 '안정적인 PC 사용 및 인터넷 접속'이 또 하나의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초등교사들 간의 사소한 주변적 소통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와 교수학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려졌던 초등교사들의 문화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정보화 시대의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따라 과거의 초등교사 문화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한 소멸되거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현재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적 성향 등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초등교사 문화는[3]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조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과거에 비하여 많이 약화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서 초등교사들의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교실에서 고립된 채로 개인주의적 성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교사들을 만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초등교사들은 동학년 문화를 가장 중시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동학년 문화와 온라인에서의 동학년 문화는 다소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형식적이고 양적인 문화 지향을 보이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보다 질적이고 구체적인 동학년 문화를 이룬다. 또한 조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동학년 문화를 가장 중시하지만 '교과전문성'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하다. 주로 동학년 문화가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 영역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큰 부분인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의 교사 커뮤니티는 그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는 교사전문가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PC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초등교사들의 학교 환경은 인터넷을 통한 초등 학습 컨텐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온라인에서의 초등교사들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

3) 이는 이정선(2002)이 정리한 초등 교직문화의 특징을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 이중적 구조 등과 황기우(1998)가 정리한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특성,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성으로 인한 현재주의적 경향,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향을 말한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초등교사들의 문화가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이미 제작된 학습 컨텐츠를 초등학교 교사들 스스로의 능력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박병건, 개인의견 교환, 2003; 박석병, 개인의견 교환, 2003; 정바울, 2001). 하지만 대체로 오프라인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공급받고, 새로운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초등교사 문화의 확산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언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영역 침범하지 않기, 암묵적 경쟁 관계 등 여전히 단위학교에서의 부정적 문화 형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즉, 하루 종일 본인의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위학교에서의 문화 형성을 통하여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의 교사 문화를 규정하는 커다란 요소는 학교장의 성향과 경영방침이다. 변화하는 학교 풍토와 교사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교과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연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초등교사들은 학급과 교과에 동시에 신경을 쓰는 만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키려면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들 개인의 능력에 맡겨져 있는 커뮤니티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제도교육 내에서 공급되는 교육자료들보다 효과적인 것들도 많고, 소통의 질도 뛰어나다고 할 때 이를 공적 영역 속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들이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사전문가공동체 형태의 교사문화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초등교사의 좋은 점은 교실 내에서는 학생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교사가 노력하는 만큼, 또 고민하는 만큼의 성과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교실에 안주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제작된 학습 컨텐츠에 자신의 철학을 담지 못하고 전달만 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실에서는 전달이 아닌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여러 장점들을 통하여 형성되는 초등교사 문화의 발전 가능성은 전적으로 교사의 창의적 활용 능력에 달려있다.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참 고 문 헌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문음사.

나일주, 홍성연(2003). 가상학습공동체 형성 과정 모형 연구. **교육공학연구**, 19(3), 101-122.

노종희(1996).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행정학연구**, 14(3), 64-79.

류방란, 이혜영(2002).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남기(2002). **초등학교 교실 들여다보기**. 서울: 배영사.

박종흡, 이관규(1997).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 2, 229-255.

양정호(2002). Desigining the school as community: A new possibility of school reform. **교육행정학연구**, 20(4), 207-228.

오영재(2001). 교단일기를 통해 본 중등교사들의 삶과 문화. **교육학연구**, 39(4), 207-230.

우은복(1999). 초등학교 성역할 교직문화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9(1)**, 75-101.

유한구, 김승호(1998). **초등학교 교직문화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이용숙, 김영천 편(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이정선(2002). **초등학교문화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이혜영, 류방란, 윤여각(2001),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바울(2001). 정보 기기가 도입된 학교에서의 교사 생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4), 175-200.

조용환(1995). 학교 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사와 학생, 그들은 행복한가? **교육학연구**, 33(4), 77-91.

조용환(1999). **학교장의 삶과 일: 교장의 눈으로 본 학교문화.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진동섭, 정수현(1995.5). 한국, 미국, 일본의 교사문화 비교연구. **교육월보**, 52-59.

최욱, 이수현(2003). 초등교사의 교육 정보화 인식과 활용 실태: 성별, 경력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293-315.

함영기(2002), ICT 활용교육, 경험과 전망. **교육부 심포지움자료**.

Lortie. D. C.(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진동섭 역(1993). **교직사회 :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Bryk, A.S., Lee, V.E., & Holland, P.B.(1993).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ouis, K.S., Kruse, S.D., & Associates.(1995).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Perspectives on reforming urban schools*. Thousand Oaks, CA: Corwin.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부록 1>. 온라인 질문지 항목

다음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직문화 인식에 관한 기초 연구 조사 양식입니다.
우선 아래 사항의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성별; 남( ) 여( )
연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근무학교;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아래 항목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만의 독특한 교직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교직문화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릅니까?

2.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되는 (중등과는 다른)초등학교 교직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있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직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바람직한 초등 교직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 <부록 2>. 심층 인터뷰 질문 항목

1. 기본 사항 : 이름, 성별, 경력, 근무지역, 학교명, 담임학년, 담당업무.

2. 초등교사들 특유의 '집단적 행동양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그동안 학생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직적 상하관계, 민주적 상호관계, 소통불능의 단절상태, 지속적 갈등관계, 의지와 보살핌의 관계 등)

4. 초등학교에서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중등의 관계와 비교하여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동료교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그동안 학교장과의 관계는 어떠하셨는지요? 경험에 비추어 초등교사-초등교장과의 관계를 적어주십시오.

6. 초등학교 교사로서 개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7.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초등교사들의 문화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 초등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 ABSTRACT

##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e

**Young-Gi Ham**(Sungkyunkwan University)
**Jung-Ho Yang**(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way in which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ternet use changes their culture. Using interview data of 43 members in EduICT.org, we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new culture in an internet age and then explore how teachers' professional community develops when teachers commonly use internet in their classrooms. We find that teachers build new culture or professional community through sharing instructional resources and communicating each other through internet community, even though there exist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culture such as presentism, conservatism, and individualism.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helping to create teachers' professional community on the internet.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